

“수행 않으면 자기 손해... 진정한 유산 전하라”

정법빠리사 108 선지식 구도순례

③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요즘 뉴스를 보기가 겁난다.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슴이 턱 막힌다. 어쩌다 저렇듯 인성이 험악해졌을까? 우리는 모두 함께 업을 짓고 사는 공업중생이고, 서로서로 이어져 있는 연기적 존재이기에 더욱 남의 일 같지 않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순간 한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 '정법빠리사(바른 법에 귀의하는 수행과 나눔의 공동체)'를 만났다.

수행과 봉사를 통해 자기 자신과 이웃, 나아가 사회를 맑은 에너지로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원력을 세운 불자들의 모임에서 희망을 보았다. 게다가 국내외 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는 '정법빠리사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다가왔다.

4월 첫째 주 주말, 날들이 가기 좋은 봄날이지만 1박2일 철야 수행과 봉화 축서사 무여 스님에게 법을 구하고 인근의 법화림에서 수행하고 계신 덕현 스님을 찾아보는 '3차 정법빠리사 108선지식 구도순례'에 참여한 불자들을 보니 꽃보다 아름답다. 한 줄기 희망이 느껴진다.

환골탈태한 축서사를 보니 행복

봉화 문수산 축서사. 가는 길은 좋아졌지만 차량 정체가 순례단의 발목을 잡았다. 낮에 출발한 차량은 저녁노을이 다 넘어가서야 축서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었다. 첩첩한 앞산은 아슴푸레해서 더욱 멋졌고, 축서사를 품은 문수산의 진경산수화 같은 풍경에 여기저기에서 "정말 좋다. 축서사에 온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감탄사가 연신 터져 나왔다.

축서사(鶯棲寺)는 독수리가 깃들여사는 절이라는 뜻이다. 독수리는 지혜를 상징한다. 서기 613년 의상 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인 축서사는 을사보호조약 이후 의병이 전국적으로 걸기하자 일제가 의병을 혁파하기 위해 대응전만 남기고 전소됐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삼성각 한 동을 새로 짓고 6.25 전쟁 직후에 요사채 한 동이 신축됐다. 이렇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축서사가 여법한 사격을 가지게 된 것은 현재 사찰을 이끌고 있는 무여 스님 덕분이다.

사람이나 도량이나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한다고 했던가. 1988년 수행력 높은 무여 스님이 축서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새롭게 축대를 쌓고 도량을 넓히고, 전각을 신축해서 참선 수행과 포교 도량으로 환골탈태시켰다. 스님은 그동안 봉화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 간화선공(看話禪風)을 불러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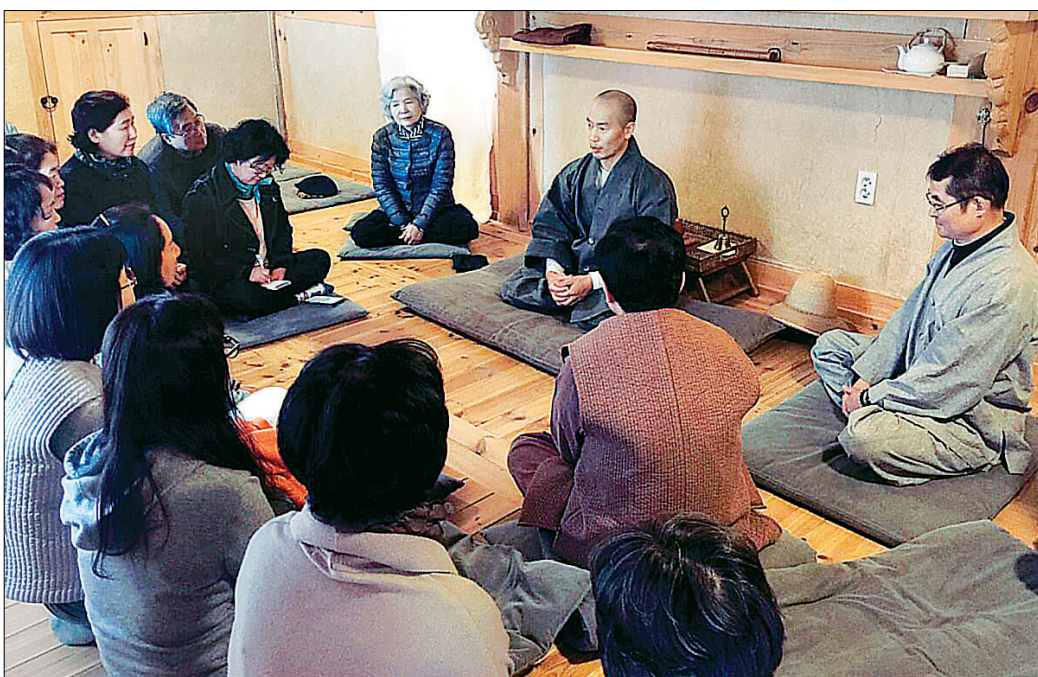
축서사 선원은 5개월 안거, 하루 15시간 결제로 유명하고, 축서사 템플스테이도 365일 상설되어 축서사에 출·재가 수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무여 스님이 순례단에 소참법문을 내리고 있다. “수행 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명료하고 강렬했다.



정법빠리사 108선지식 순례단은 4월 2-3일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철야 정진을 진행했다. 사진은 순례단이 지도에 따라 아비라 기도와 능엄주 수행을 하는 모습.



법정 스님의 제자 덕현 스님이 수행 중인 법화림에서도 수행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의심은 간화선의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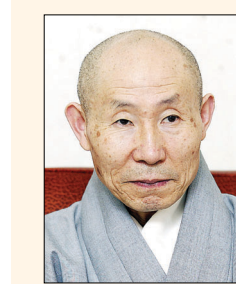
축서사의 맑은 고요, 그저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텅 놓여지고, 공부가 절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선지식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법한 그 절의 분위기가 말해준다. 유유상종, 만나는 사람마다 선지식의 영향을 받아 공부가 무르익어 보인다. 저녁공양을 마치고 바로 축서사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해오 스님의 간화선에 대한 설명이 명쾌했다.

“간화선은 화두에 의심을 일으키는 공부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지갑을 찾아 해매듯이 ‘나는 누구인가?’ ‘이 뭐꼬?’ 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잘 안 들 것입니다. 간화선의 의심은 계속 물으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으면 부딪힐수록 불을 붙이듯이 진짜 의심이 되고 의심의 덩어리인 의외가 생기고 마침내 화두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는 누구인가?’ ‘어디

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면 삶이 너무 허망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참선 수행에 대한 신심이 솟구친다. 이어서 본격 철야 정진에 앞서 삼귀례, 108참회, 아비라 기도, 능엄주, 수행다짐, 사홍서원으로 이루어진 기도법회에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성철 스님께서 “참선 수행 전에 아비라 기도와 능엄주를 하라”고 강조하신 까닭을 알 것만 같았다. 특히 호쾌함을 하고 아비라 기도를 하는데, 마치 몸과 마음에서 묵은 타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다. 한편 명현 현상인지 마장인지 모르겠으나 평소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들쭉였다.

45분 정진에 15분 포항의 철야정진을 하면서 슬슬 걱정이 되었다. 역시나 아비라 기도 때부터 올라오던 목이 아픈 증세와 기침이 심해졌다. 목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겠으나 기침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여러 사람이 염송할 때는 기집소리



무여 스님은

194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1966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제방 선원에서 20년 동안 수선 안거하였다. 칠불사와 망월사 선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부터 축서사에서 제방의 수좌들과 재가불자들을 맞이해 지도하고 있다. 조계종 초대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축서사 선원 조실과 기초선원 운영위원으로 한국선의 기풍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가 그 속에 묻혔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적막을 깨는 기침에 민폐를 끼칠 수 없어서 도반들과의 정진을 포기했다. 정해진 방식에 돌아와 ‘이 무슨 현상인가’ 의심하다 보니 새벽종음이 들린다. 새벽예불, 어쩌면 이리 여법한 말인가? 이 모든 것이 무여 스님 덕분이라 생각하니 스님의 소참법문이 더욱 기다려졌다.

“인류 위해 수행·포교해야”

이윽고 진행된 무여 스님의 소참법문. 스님은 청소년기부터 존재와 삶에 대해 깊이 사유했다. 스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종합상사에까지 취업했지만, 무한경쟁의 삶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사발 입산했다. 고뇌가 컸기에 더욱 치열하게 수행하여 공부의 힘을 얻었다. 그랬기에 무여 스님의 소참법문은 더욱 가슴에 와 닿았다. 스님이 이날 설한 소참법문을 짧게 정리해본다.

“수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은 가장 높고, 행복지수는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의 1차 목표가 청안입니다. 늘 마음이 맑고 고요하고 행복할데, 이혼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화두를 들되, 호흡에 의지해서 깊숙이 들이켰다가 내쉬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간절하게 의심을 일으키세요. 의심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일어나다가 멈췄다가 하는데, 수행이 자리 잡히면 의심이 순일하게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오묘한 법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고난 각본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수행을 하면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든 집중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애플사를 창립한 스티브잡스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사흘 만에 양자로 보내졌습니다. 대학도 3류 대학을 한 학기 수강한 이력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도에 가서 힌두교의 집중수행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불교의 참선을 잘 배워서 자신의 일에도 집중해서 세계 초일류가 되었습니다.

요즘 영재교육, 천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수행이고, 마음공부입니다. 수행을 통한 두뇌개발과 자기 계발을 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아파트 물려주는 것보다 좋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요, 인류의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참구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좋은 새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3차 구도순례의 마지막 함께 참석한 24명의 도반들과 함께 정진 소감을 나누었다. 모두 할말같이 무여 스님의 가르침과 도반들과 함께 수행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다.

일래향 보살(70)은 “집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지루 끊겨서 아쉬웠다.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어서 참석했는데, 참 좋았다”면서 “저는 공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말 바쁘다”고 말했다.

삶의 순간은 늘 일기일회, 늘 한 번뿐인 만남이다.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떤 만남을 할 것인가? 모두가 선지식이다. 선지식이 곁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행복한가? 축서사 인근의 법화림에서 수행 중인 덕현 스님, 스승인 법정 스님을 꼭 빼놓은 스님을 보니 기쁨이 솟아난다. 법화림에서 덕현 스님의 법을 듣고 차를 대접받는 청복을 누리니 화룡점정(畫龍點睛)의 일기일회(一期一會)가 아니겠는가.

정리=사기순 민족사 주간

정법빠리사 4차 108선지식 구도순례

정법빠리사 4차 선지식 순례는 '이웃종교와의 만남'이 주제입니다.

일시 : 2016년 5월 28일(토)~29일(일)
선지식 : 함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문의 :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010-5217-2878)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연 등

※ 공단연등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 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